

제1장

서론: 보은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

계절성 극복의 필연성과 시공간적 확장 전략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계절성 극복의 필연성

⚠ 현재 문제점

- ✗ 봄·가을 축제 편중
봄 신화여행축제, 가을 대추축제에 과도하게 집중
- ✗ 여름·겨울 비수기
지역 숙박업·요식업 매출 절벽, 관광 인프라 가동률 저하
- ✗ 기후 변화 위협
전통 겨울 축제(얼음 낚시 등) 콘텐츠 위기

✅ 본 제안의 해결책

- ✅ 여름: Cool & Horror
자연의 냉기 + 심리적 냉기(공포)로 무더위 극복
- ✅ 겨울: Light & Silence
빛과 문화유산 중심의 기후 독립형 콘텐츠
- ✅ 이머시브 축제
참가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콘텐츠

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의 관광 산업 구조는 특정 시기, 즉 봄철의 '속리산 신화여행축제'와 가을철의 '보은대추축제'에 과도하게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은대추축제는 '대추는 달콤, 보은은 웰컴'이라는 슬로건 하에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는 수확기인 가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관광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계절성(Seasonality)**'은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은군이 가진 천혜의 산림 자원과 풍부한 설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여름과 겨울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1.2 보은군 관광 자원의 심층 분석

자연 생태 자원과 인문학적 자원의 재해석

🌲 자연 생태 자원



오리숲과 세조길

법주사 입구의 전나무·소나무 터널.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무장애 탐방로.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요양차 방문했던 역사적 길.

평탄한 길 역사적 스토리

야간 트레킹 최적지



수자원 (계곡 및 저수지)

서원계곡과 만수계곡은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 삼가저수지와 비룡저수지는 수변 경관이 뛰어나 겨울철 빙상 축제나 수변 산책로로 활용 가능.

피서지 수변 경관 빙상 축제 가능



말티재와 솔향공원

12굽이의 말티재 고부랑길과 전망대는 보은의 랜드마크. 야간 경관 조명과 결합될 때 강력한 시각적 임팩트 제공.

12굽이 드라이브 전망대 야간 경관



도깨비 설화

한국의 도깨비는 악귀가 아니라 인간에게 부를 가져다주거나 씨름을 청하는 해학적인 존재. 보은 지역의 도깨비 전설을 현대적인 캐릭터나 호러 콘텐츠로 재가공하면 '한국형 판타지'를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강력한 소구력 발휘.

F&B 콘텐츠 개발 단초

- 도깨비가 팔죽, 붉은색을 싫어함 → '액운 타파' 팔죽 메뉴
- 메밀묵을 좋아함 → 도깨비 메밀묵 세트



법주사와 세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법주사의 팔상전(국보 제55호)과 쌍사자 석등은 그 자체로 미적 가치가 뛰어남.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속리산을 찾았다는 '치유'의 서사는 현대인의 멘탈 헬스 케어 트렌드와 정확히 부합.

활용 가능 콘텐츠

- 팔상전: 프로젝션 매핑 스크린
- 세조의 목욕소: 힐링 로드 코스
- 치유 서사: 명상·힐링 프로그램

1.3 경쟁 축제 분석 및 벤치마킹

국내외 유사 축제의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구분	주요 사례	성공/실패 요인	보은군 적용 시사점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성공: 얼음낚시라는 확실한 킬러 콘텐츠, 체계적 운영	얼음에 의존하지 않는 '빛'과 '문화유산' 중심의 콘텐츠 개발. 법주사 미디어아트가 대안.



		한계: 기후 온난화로 결빙 불확실성, 동 물권 이슈	
여름 호러	합천 고스트파크	성공: 영상테마파크 세트장 활용, 젊은 층 팬덤 형성 특징: 고가 입장료에도 매진 행렬	인위적 세트장이 아닌 '실제 숲(오리숲)'의 원초적 공포감. 시설 물 최소화하는 '스토리텔링형 호러' 지향.
야간 관광	수원 화성 미디어아트, 진 주 남강유등축제	성공: 문화유산의 야간 경관화, 체류 시 간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법주사 팔상전 및 세조길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문화재 야행' 트렌드 반영으로 체류형 관광 유도.

🏛️ 핵심 인사이트

1

기후 독립성

얼음/눈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로 기후 리스크 최소화

2

문화유산 활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를 활용한 차별화된 품격

3

스토리텔링

도깨비 설화와 세조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몰입 경험

2026 속리산축제 콘텐츠 공모전 제안서

제1장: 서론 - 보은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과 시공간적 확장